

민주, 선거 막판 ‘극적 단일화 경계’ 연일 공세

윤여준 “金, 미련 못버려…명분없어”
“빅텐트 아닌 빈텐트·찢어진 텐트”
이준석 “특단의 방법” 언급에 견제
‘새집론’ 국힘 “힘 합쳐야 한다” 구애

더불어민주당은 21일 ‘반(反)이재명’ 빅텐트를 추진 중인 국민의힘을 향해 “찢어진 텐트”, “빈 텐트”라며 연일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다.

선거 막판에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와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간 ‘단일화’로 보수층 결집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이날도 ‘극적 단일화’를 경계하며 긴장의 끈을 더 바짝 조이는 모습이 다.

윤여준 상임총괄선대위원장은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중앙선대위 회의에서 “김문수 후보가 이준석 후보에 연일 덕담하며 후보 단일화의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있다. 모두 반명(반이재명) 빅텐트를 위한 작업”이라고 깎아내렸다.

그는 “이것은 아무 명분이 없는 야합에 불과하다”며 “반명은 빅텐트의 명분이 되지 못한다. 빅텐트가 아니라 ‘빈 텐트’, ‘찢어진 텐트’일뿐”이라고 말했다.

그는 “내란·극우 세력이 총결집하고 있다”며 “내란으로 성나고 피로해진 민심은 무시하고 국민을 속이려는 수작일 뿐이라는 것을 국민은 이미 간파하고 계신다. 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1일 인천 부평역 북광장에서 열린 집중유세에서 인천 시민들에게 지지를 호소하는 가운데 이 후보와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의 현수막이 걸려 있다.

공동취재·연합뉴스

리는 방심하지 말고 최선을 다해 저들을 심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위원장은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가 지원 유세에 나선 것을 겨냥해선 “한 전 대표는 계엄을 반대하고 탄핵을 찬성했는데 윤석열과도 선긋지 못한 김 후보 지원 유세를 시작한다는 게 말이 되나. 자기 부정 아니냐”라고 되물었다.

민주당은 특히 선부른 낙관론을 경계하고 있다.

투표를 하락을 놓고 보수 역결집으로

이어지는 상황을 우려하는 것이다.

김경수 위원장은 “PK(부산·울산·경남)에서 이 후보에 대한 추세가 좋아지고 있는 건 맞지만 현장 민심은 전체적으로는 여전히 박빙”이라며 “국민의힘에 실망해 투표를 안 한다는 분들이 많은데, 막판에 작은 계기가 생겨도 (보수 성향 유권자는) 바로 결집해 버린다”고 말했다.

이준석 후보를 향한 견제구도 날리고 있다.

강훈식 종합상황실장은 전날(20일)

“이준석 후보가 언론을 통해 특단의 방법을 언급했다. 김문수·이준석 후보가 반이재명 협공을 시작할 것이란 전망”이라며 “이준석 후보의 특단의 방법이 네거티브 공세에 올인하는 것이라면 그 선택은 미래를 여는 선택이 아니라 오히려 본인의 미래를 담는 선택이 될 것을 분명히 경고한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은 이날도 이준석 후보를 향해 김 후보와의 단일화를 염두에 둔 구애의 손짓을 이어갔다.

민주, ‘李 방탄 유세’ 비판 김문수에 “테러 정당화”

더불어민주당은 21일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이재명 대선후보의 경호를 비판한 것과 관련해 “테러를 정당화하는 위험천만한 발언”이라고 비판했다.

한민수 선대위 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가 테러 위협을 겪고 있는 이재명 후보를 비난하면서 ‘총 맞을 일 있으면 총을 맞겠다’는 극언을 내뱉으며 극우 내란 후보임을 과시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테러를 당하면 테러를 당할 일을 한 것인가? 테러를 정당화하는 위험천만한 발언이자 테러를 부추기는 끔찍한 망발이다. 대통령이 되겠다는 사람으로서 극도로 무책임한 발언이기도 하다”고 비판했다.

이준석 측 “친윤계 ‘당권 줄테니 단일화’ 전화 많아”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 측이 21일 “요즘 국민의힘 인사들이 이준석 후보 측에 단일화를 하자며 전화를 많이 걸어온다. 대부분이 친윤계 인사들”이라고 밝혔다.

이동훈 개혁신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이분들은 ‘당권을 줄테니 단일화를 하자’, ‘들어와서 당을 먹어라’는 식의 말을 한다”며 “그 전제는 늘 같다. 대통령 후보는 김문수로 가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수석대변인은 “이들의 단일화 주장에는 두 가지 의도가 깔려 있는 듯하다”며 “첫째는 대선 이후 당권 구도를 염두에 둔 계산이고, 둘째는 패배의 책임을 회피하려는 알리바이 만들기”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분들은 한동훈(전 국민의힘 대표)이 대선 이후 국민의힘 당권을 쥔까봐

한 대변인은 “이 후보는 테러로 생명을 잃을 뻔했고,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도 테러의 표적이 됐다. 당장 어제만 해도 흥기를 소지한 채 민주당사 주변을 배회하던 현행범이 체포됐다. 김문수 후보는 다함께 ‘폭력은 안 된다’고 외쳐도 모자란데 증오와 폭력을 조장하지 말라”고 말했다.

김문수 후보는 전날 서울 강서구 남부골목시장 유세에서 이재명 후보가 방탄조끼를 입고 유세 현장 연단에는 방탄유리를 설치한 것을 비판했다.

김 후보는 연설 도중 점퍼 지퍼를 내리면서 “방탄조끼 입고 방탄유리 다 쳐 놓고 이런 사람이 대통령이 돼서 되겠다”라며 “나는 필요 없다. 총 맞을 일 있으면 나는 맞겠다”고 말했다.

서울=김선욱 기자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가 21일 경기 성남의료원에서 간담회를 갖고 있다.

연합뉴스

노심초사한다. 차라리 이준석이 당권을 가져가는 게 낫다고 보는 것”이라며 “혹여 대선에서 지더라도 ‘이준석이 단일화를 거부해서 졌다’는 프레임을 미리 짜두려는 것 같다. 책임을 나눌 사람을 찾는 셈”이라고 말했다.

서울=김선욱 기자

尹 ‘부정선거’ 영화 관람에 국힘 내부서도 비판

“대선에 악재, 자중해야” 불만도
李 “본인이 이기고… 이해안돼”

윤석열 전 대통령이 21일 부정선거론을 주장하는 다큐멘터리 영화를 관람한 데 대해, 더불어민주당 뿐 아니라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국민의힘은 공식적으로 탈당한 윤 전 대통령의 행보는 당과 무관하며 거리를 두고 있지만, 그럼에도 대선에 미칠 악영향을 우려하며 ‘부글부글’ 끓는 분위기다.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윤 전 대통령은 탈당했다. 저희 당과 이제 관계 없는 분”이라며 “개인적 입장에서 봤을 때 윤 전 대통령은 계엄에 대한 반성·자중을 할 때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한동훈 전 대표는 페이스북에서 “국민의힘은 ‘윤 어게인’, 자통당(자유통일당), 우공당(우리공화당), 부정선거 음모론자들과 손잡으면 안 된다”며 “국민의힘이 자멸하는 지름길”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의 온라인 단체대



윤석열(가운데) 전 대통령이 21일 서울 메가박스 동대문에서 다큐멘터리 영화 ‘부정선거, 신의 작품인가’를 관람하고 있다.

공동취재·연합뉴스

화방에서도 “선거에 부정적 영향을 줄 것이다. 만류해야 한다”, “윤 전 대통령이 자중해야 한다” 등의 글이 올라왔다.

김문수 후보는 이날 방송기자클럽 토론회에서 “유권자 중 누구라도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하면 선거관리위원회에서 해명하고, 해명할 노력을 계속 해야 한다”며 “앞으로 부정선거 의혹을 완전히 일소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이날 인천 남동구 유세를 앞두고 기자들을 만나 “그 선거 시스템으로 본인이 선거에서 이긴 것 아닌가”라며 “이를 부정선거라고 하면 어떻게 되는 건가. 이해가 안 된

다”고 비판했다.

이 후보는 ‘국민의힘에서는 윤 전 대통령이 자연인이라면서 선을 긋는 모습인데 어떻게 보냐’라는 질문에는 “제가 앞서 2월 16일 ‘국민의힘이 100일 안에 윤석열 전 대통령을 부인할 것’이라고 했는데 실제로 그렇게 됐다”며 “앞으로는 더 강력하게 부인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후보는 “이것은 겉보기로 국민들에게 보여주는 허언이고, 실제로는 (국민의힘과 윤 전 대통령)이 깊이 연관돼 있다. 윤 전 대통령이 탈당을 하면서도 응원을 하고 나가지 않았냐”라며 “결국은 여전히 일심동체”라고 말했다.

서울=김선욱 기자

선관위, 21대 대선 거소투표용지 인쇄

24일까지 신고인 거주지 발송

제21대 대통령선거 거소투표 선거인을 위한 거소투표용지 인쇄 작업이 21일 각 지역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실시됐다.

이번 선거에는 총 7명의 후보가 출마했다.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기호 2번 국민의힘 김문수, 기호 4번 개혁신당 이준석, 기호 5번 민주노동당 권영국, 기호 7번 무소속 황교안, 기호 8번 무소속

송진호 후보 순이다. 기호 6번 자유통일당 구주와 후보는 지난 19일 후보직을 사퇴했다.

각 선거관리위원회는 이번 대선과 관련해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는 선거인 등 거소투표 신고를 한 유권자를 대상으로 투표안내문과 거소투표용지를 오는 24일까지 발송할 예정이다.

거소투표 신고인은 거소지로 송부받은 투표용지에 불펜 등 필기구로 직접 기표

후 봉투에 넣어 관할 구선거관리위원회에 등기우편을 발송해야 한다. 등기우편은 선거일 마감시각인 6월 3일 오후 8시까지 도착해야 한다.

제21대 대통령선거는 오는 6월 3일 치러진다. 유권자들은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 지정된 내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다. 사전투표는 오는 29일부터 30일까지 매일 오전 6시~ 오후 6시까지 전국의 사전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다. 21대 대통령의 임기는 2025년 6월 4일부터 2030년 6월 3일까지다.

서울=김선욱 기자